

# 트럼프, 궤멸적 타격 경고 막판 압박...종전선포 가능성도

“합리적 새 정권”과 합의의 전망하면서 “안되면 전력·석유 인프라 초토화”  
모든 것 파괴하고 “체류 끝낼 것”...지상군 투입 대비 ‘연막작전’ 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한 ‘궤멸적 타격’을 경고한 것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4월6일)을 일주일 앞두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조기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력과 식수를 끊고, 정권의 돈줄인 석유 생산·수출 시설을 부수겠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27일 처음으로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면서 지목했던 공격 대상은 발전소였는데 이번에는 공격 대상을 거의 모든 치명적인 민간 시설로 확대했다. 실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외교적·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압박을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중재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목적이 담겼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란에) 15가지를 요구했고, 몇가지 다른 것들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듯하다. 실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속에도 상대측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큰 진전을 이뤘다”며 “어마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자평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곧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경고한 초토화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요구사항 중 최우선 순위인 핵물질 포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통행이 남는 일주일 안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 또는 타협점을 모색하거나, 치명적 타격을 받을 리스크를 안은 채 강경한 군사대응 노선을 고수하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서 주목되는 또 한가지 대목은 일방적인 철군, 즉 종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뒤 ‘이란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아직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체류’를 끝낸다는 말은 지난달 28일 시작한 대이란 공습을 매듭짓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과의 전쟁 기간을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로 잡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전쟁은 이미 4주를 지나 5주차에 접어들었다. 전쟁을 더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르그 섬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주요 도서와 이란 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까지 약 7천 명의 지상군을 배치한 상태지만, 막상 상당한 미군 희생 리스크를 감수한 채 지상군을 투입하는



불타는 이스라엘 정유시설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이파의 한 정유 시설에서 산업 건물과 유조차가 이란 미사일 요격 파편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다. /REUTERS=연합뉴스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결국 최종 시한까지 합의가 불발됐다고 판단할 경우 대규모 공습으로 자신이 지목한 시설들을 파괴해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뒤 대이란 작전 승리를 선언하고 작전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이번엔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정권이 사실상 교체됐다고 주장하는 점도, ‘파괴’ 외에 아무런 소득 없이 전쟁을 끝낸다는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개전 이후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정권과 군 수뇌부를 잇따라 제거한 사실과 최고지도자 지위를 세습한 아들 모스타바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권 교체에 근거로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뤘다”며 현재의 정권을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불렀고, 이날도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으로 표현했다.

물론 초토화 작전을 끝낸 뒤 미군이 대이란 작전을 종료한다고 해서 전쟁이 즉시 종료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스라엘 및 걸프국들과 이란이 공

격을 주고받거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군이 공세를 중단하면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며 중동 상황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고, 그 경우 더 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사가 지상군 투입을 위한 시간 벌기 또는 연막 작전이라는 관측도 이란 안팎에서 제기된다. 지난달 미-이스라엘군의 전격적인 기습이 있기 전에도 양측은 핵 협상을 벌이는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인니 여객선 침몰...탑승자 27명 구명보트 대피 후 실종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높은 파도로 소형 여객선이 침몰해 27명이 실종됐다.

31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인도네시아 동부 중앙술라웨시주 팔루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했다.

여객선 선장은 높은 파도로 배 앞쪽이 파손됐다고 알렸고, 선박소유자가 구조당국에 신고했다. 여객선이 침몰하기 전 배에 타고 있던 27명 모두 구명보트를 이용해 대피했으나 이후 실종됐다.

해당 여객선은 지난 29일 오후 6시께 북발루쿠주 탈리아부섬에서 출발해 중앙술라웨시주 케마로 가던 중이었다.

무엇만 리잘 팔루 수색구조국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선주가 사고를 처음 신고해 수색 작전을 시작했다”며 “실종자들 위치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여객선이 평소 관광객을 수송했다며 현지에서는 어선이나 소형 여객선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 당국은 헬기와 함께 구조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고, 현지 어민들의 협조를 받아 실종자를 찾고 있다.

1만7천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선박이 주요 교통·운송 수단이지만, 낡은 배가 많고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해양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연합뉴스

## 日, 호위함 개조 이어 육상부대 ‘반격능력’ 미사일 첫 배치

### 北·中 염두 방위력 강화 속도

### ‘전수방위’ 방침 전환점 평가

일본 자위대가 호위함에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한 데 이어 31일부터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염두에 두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본격화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

사 가능) 방침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이 배치되는 곳은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健軍)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다.

구마모토현에는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을 두게 된다. 이 미사일 사거리는 약 1천km로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닿는다.

시즈오카현에는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이 배치된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km이지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천km까지 늘

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와는 별도로 사거리가 약 1천600km인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했다. 조카이는 8월 이전에 토마호크 시험 발사를 하고 9월께 규슈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도 F-35A 전투기에 장착할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JSM의 반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1박스-60,000원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어청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각 시·군 취급점 모집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보람약품(주) 062)528-6664